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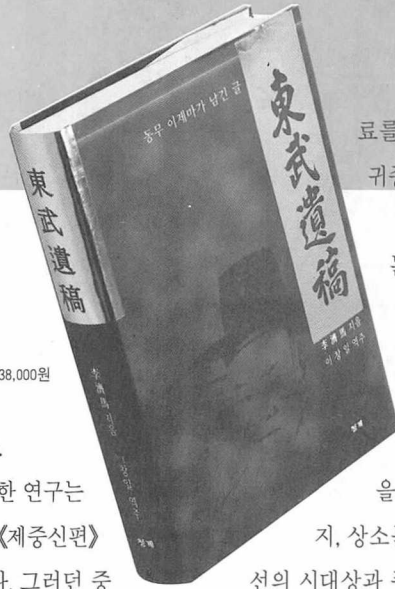
격변기를 살다 간 어느 선각자의 삶과 사상

이제마의 《동무유고》를 읽고

이 의 주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 교수

사상철학을 창안한 동무 이제마의 문집이 번역돼 나왔다. 기존의 저서들이 주로 사상철학을 설명한 것인데 비해, 이 책은 동무의 인간적 체취를 풍기는 글이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는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무의 일대기가 밝혀져 있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계/A5신/410면/38,000원



료를 제공해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한다.

시부(詩賦)에는 10편의 시가 있는데, 동무선생이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 벽에 걸어 놓았다는 자경시(自警詩) 외에 유랑중에 겪은 인간들의 삶과 자신의 고뇌를 시로 읊으면서 애환을 달랜 흔적이 보인다. 그외에 편지, 상소문, 문답의 글 등에는 19세기 조

선의 시대상과 풍속이 잘 나타나 있다. <동무유고편>과 <동무자주편>에는 역자의 해박한 지식으로 역학적인 수리적 패턴을 이용해 동무철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사상의학을 전공하는 내 관심을 끌었다.

역자는 해제에서 《동무유고》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상인의 창안은 동무라는 한 사상가의 사변적 연역에서 귀결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의 성정과 그들의 삶의 환경을 체험하고 추측하는 지인(知人)의 통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동무유고》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동무공 사후 100주년인 되는 뜻깊은 해다. 이런 때 한글로 번역된 《동무유고》가 출판돼 동무선생을 재음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를 계기로 동무학문을 연구하는 후학들은 ‘유자(儒者)로서의 동무’와 ‘의자(醫者)로서의 동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동무선생은 단순한 한의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 했던 선도자였던 것이다. ●

10여년 전 북한에서 이웅평씨가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일이 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자기를 소개하며 “소음인 이웅평...”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 안될 것이다.

그때 학생신분이었던 나는 그 말에 무척 놀라면서 의외라고 생각했다. 당시 국내의 체질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계에서도 극히 미미해, ‘소음인’ 같은 말은 대중성이 없는 학술용어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말을 사용한 사람이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북한군 장교라는 사실은 놀라움을 더하게 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는 사상인(四象人: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사상의학이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무선생의 출생지였던 함흥에는 아직까지 동무선생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리라고 상상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 ‘사상의학’ ‘체질의학’이라는 용어는 낯설지 않게 됐다. 국내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꽤 진척된 덕이다.

사상의학은 동무 이제마(東武 李濟馬: 1897~1900)가 저술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이라는 의서에 그 뿌리를 둔다. 사상의학은 지난 몇년 동안 활발히 연구돼 왔지만, 동무의 의학세계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의 사상철학까지 연구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동무의 사상철학에 관한 연구는 그의 저서인 《격치고》와 《제중신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던 중 지난 199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돼 있던 《동무유고(東武遺稿)》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동무유고》는 1940년 영인된 《격치고》의 이면에 두명이 필사한 것으로 《동무유고》의 구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번에 청계에서 나온 책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있던 《동무유고》를 한글로 옮긴 것인데, 난해한 부분은 역자의 해박한 지식으로 자세히 설명돼 있다. 《동무유고》는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무선생이 평소 써 놓은 여러 장르의 글을 함께 모은 일종의 문집이다. 이 책에는 19세기 격변하는 조선과 동아시아의 정치·사회가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동무선생은 조선과 동아시아의 보편적 인식을 재해석해 사상철학을 완성하고, 의학을 통해 이 철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이 책은 기존 저서에서 보인 동무선생의 독특한 언어 및 문장구조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육성에 가까운 체취를 풍긴다. 그래서 1백여년의 시대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학문을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는 묘한 맛이 있다. 또한 이 책은 동무선생의 출생·가계·관직·교우 등 일대기적 자